



interview

한국대학출판부협회 박방배 사무국장

대학구조조정, 대학출판부 효율성 전문성 높이는 계기

최근의 변화 모습을 볼 때 이상적인 대학출판부의 모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사실 이상적인 대학 출판부모델은 좋은 책 만들고 수익성도 좋으며 인류 지식건강에 부응할 수 있는 출판부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우선 출판사업은 자율성의 제고다. 기획 편집 등 엄격한 통제는 양서출판의 저해요소이며 창의적인 업무개발에 걸림돌이 되기 마련이다. 대학출판부는 가능한 독립부서로 존치하며 수익사업과 신념사업을 겸비하되 신념사업에 비중을 많이 둔 조직체로 구성해야 한다.

대학출판부의 직접적 위기는 대학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교육과정 개편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재정상의 문제 뿐 아니라 학문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탓이 아닌가?

교과 과정의 개편으로 교양 필수가 없어지는 대신, 선택과목으로 전환되는 학교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 이에 따라 수익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다. 각 대학들은 이처럼 선택의 대상으로 변한 학문 분야와 과목에 따라 대응 출판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투입과 산출에 문제가 있다. 다행스럽게 인쇄 기술의 발달로 직접비가 덜든 소량의 책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기도 했지만, 여러 학교에서 같이 쓸 수 있는 연합교재 개발을 고려해 보는 등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 일부 대학의 대중서 출판을 두고 '대학출판부가 활성화 가능성을

'아카데미즘 넘쳐야 교양도 나온다'

대학출판부의 위기 극복을 위해 내부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대중출판으로의 영역확대다. 기초학문 출판의 판매는 갈수록 저조하고 교재를 팔아 운영비를 충당하는 시대도 지나간 이상 '아카데미즘을 넘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도서를 개발해야 살아남는 시대에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문출판사들은 대학출판사들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대학출판부 본연의 역할, 즉 아카데미즘을 구현하지 못한 채 '피'를 부려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아카넷 정연재 출판팀장은 "학문연구가 우선이나 실용교육이 우선이나를 둘러싼 논쟁은 대학 설립 초기인 서양 중세부터 있어 왔던 얘기"라며 "하지만 대학은 실용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대처하기보단, 대학 본연의 존재이유인 새로운 학문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교양성 확보는 그 이후의 일로 학술출판과 관련된 엄숙주의,

형식주의를 극복하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논형출판 소재두 사장은 "현재 대학출판부에서 나오는 교양서를 보면 기획위원들이 유명 상업출판사들의 활동을 지켜보다 '우리도 해보자'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의 인문서는 저자의 브랜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편집력과 기획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 상업출판사와 경쟁해서 성공할 확률은 적다"고 지적했다. 물론 대학출판부만이 할 수 있는 교양서적이 있지만 지금처럼 방향을 튼다고 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수익사업체·학술출판 주역의 이중 역할이 과제

물론 상업출판사로선 내심 '경쟁자 아닌 경쟁자'로 여기며, 이들 대학출판부의 변신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관측도 뒤따른다. 한 대학출판부 관계자는 "어찌됐든 상업출판사로선 또 하나의 시장 참여자 집단이 등장하는 게 결코 반갑지 않은 현상일 것"이라고 말

근본적인 기능 밖에서 찾으려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일부 대학에서 운영난의 해소를 위해 약간의 상업성을 겸비한 실용서 혹은 교양서를 출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전성과 도덕성의 차이에서 접근해 한다. 즉 잘 팔리지 않는 학술서만 출간했을 때 오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팔리는 책을 기획하여 수익을 올리려는 것은 도전성이고, 대학출판부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신념사업의 일환으로 가는 것은 도덕성이다. 그러나 요즘 대학과 사회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기업은 대학에게 기업에서 바로 실전투입이 가능한 대학생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다. 어떤 기업은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부 기술 등을 대학교 과목으로 개설해 수강한 학생을 보내오면 취직을 시켜준다고 할 정도다.

이제 대학출판부도 변해야 한다. 즉 지원형태가 아닌 자체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지출을 해야 하는 대학출판부들은 출판기획에서 수익이라는 명제를 지워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고고한 도덕성보다는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도전성을 택할 수밖에 없는 대학출판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대학출판부는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방안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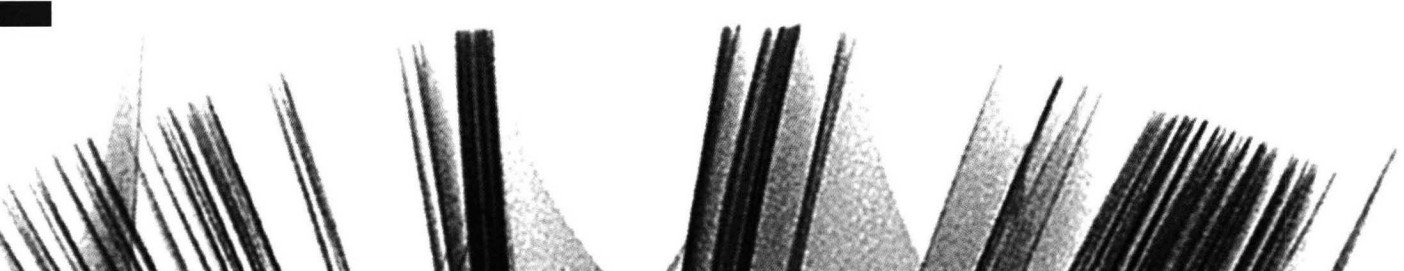
대학의 구조조정예 의한 대학 출판부들의 영향에 관해서는 오히려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즉 대학간의 구조조정과 기구의 통폐합은 출

판부 역시 효율성과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역에 따라 거점 대학에만 출판부를 둘 경우 대학 통폐합에 의해 학생수나 학교 규모가 커지고 출판부의 규모나 시스템도 훨씬 커질 것이다. 그래서 출판물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해지고, 현재의 1인3역 인적 구조를 탈피해 기획·편집디자인·홍보·마케팅 등으로 세분화될 것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학출판부협회가 해결할 과제는 무엇인가.

사실 협회 차원에서 대학출판부 활성화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즉 각 대학마다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회는 우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실무자연수회, 한·중·일 국제세미나 등을 통해 학술출판을 이해하고 증진시키고 회원교 상호간의 업무협조 및 연합출판 등을 고려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실무위원회 4분과(편집분과 홍보분과 업무분과 교육분과)의 활동을 강화해 더 좋은 책 만들기 프로그램, 양서보급체인망 확충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취재 신동섭 기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술출판의 주역'으로서 대학출판부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다.

오히려 인문출판사들은 학술출판에 있어서 대학출판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아카넷 정 팀장은 "학술출판은 인문서 전문 출판사에서 도외면하는 실정"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대학출판부에서 소화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소명출판사 박 대표는 아예 학술출판 시대의 종말을 예고하기도 한다. 박 대표는 "인문출판사에서 갈수록 학술서적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유명 교수 이외에는 자비출판의 형태를 띠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럴 때일수록 대학출판부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 학술서적을 출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대학출판부는 내부적으로는 채산성을 이유로 대학당국으로부터 수익사업의 강화를 요구받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본연의 역할인 학술출판의 강화를 요청받고 있는 형국이다. 그야말로 '두 마

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셈이다. 그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행정부서인 대학출판부로서는 내부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대학 구조조정 흐름에 따라 대학과 대학출판부는 생존을 위해 더욱 치열한 경쟁 속으로 내몰릴 것"으로 전망했다. [4]

취재 신동섭·김청연 기자